

論山圓峰里 支石墓와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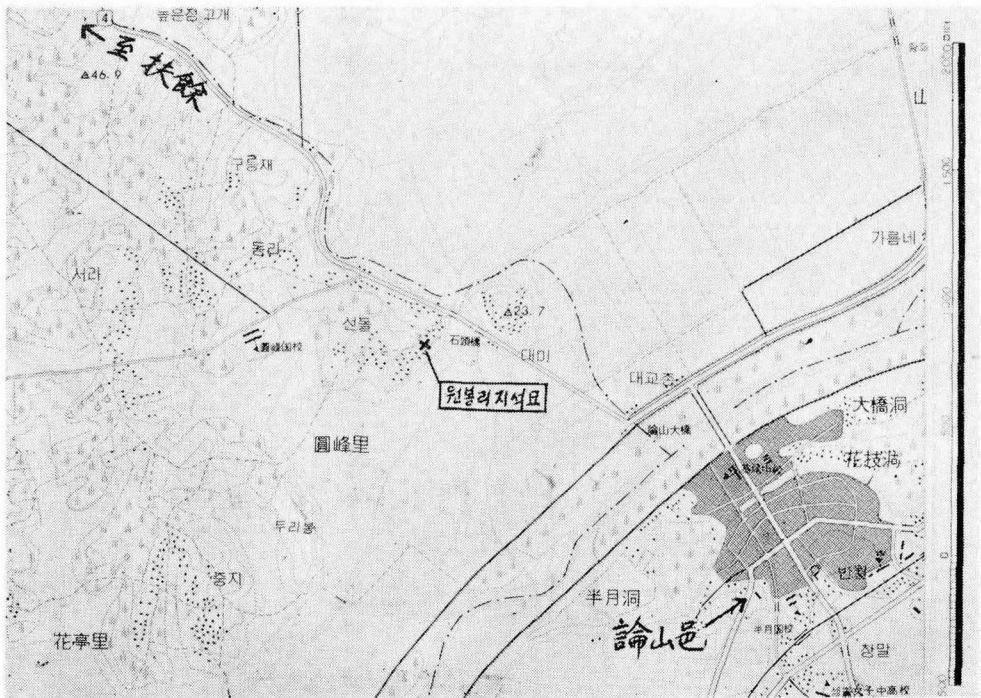
池 健 吉

一、

一九七七年 一〇月五日 論山郡城東面圓峰里二區一三番地에 居住하는 朴弘圭(三四)氏가 扶餘博物館에 磨製石器類의 出土事實을 申告해와 當日로 現地에 나가 出土遺構와 遺物을 調査하였다.

扶餘에서 論山街道를 따라 나오다가 論山邑 直前의 論山川을 一km가량 남기고 石頭橋라는 다리에 이르게 된다.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 右側으로 꺾어서 一五〇m쯤 가면 問題의 遺物이 出土된 朴氏家의 앞마당에 닿는다. 이곳은 行政區域上으로는 圓峰里에 屬하지만 住民들은 이곳 單位部落을 「선돌마을」이라 부르고 있다.

朴氏家 西便은 낮은 丘陵을 이루고 있으며 丘陵의 周邊에는 民家가 드문드문 자리잡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東·南麓에 보다 密集된 分布를 보이고 있다. 이 部落에서 볼 때 北西쪽으로는 丘陵地가 形成되어 있고 南東쪽으로는 論山川을 끼고 넓게 펼쳐진 沖積平野를 마주 대하고 있다. (圖一) 이곳 部落 이름이 보여주는 선돌(立石)이라 할 만한 것은 마을 周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오래 살아온 古老들도 선돌의 存在나 名稱의 由來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朴氏家 뒷편의 丘陵으로 이어지는 언덕배기에는 높이 三~五m의 巨大한 岩壁들이 벼랑을 이루며 마치 屏風처럼 둘러 있어 「선돌」이란 名稱의 由來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圖一 圓峰里附近地形圖

朴氏에 따르면 그의 집 앞마당에 巨石이 묻힌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으나 워낙 덩치가 커서 감히 除去할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차에 앞마당에 새로 방을 들이기 위해 整地作業이 不可避하고 또 建物新築에 마침 石材도 必要하여 이것이 支石墓라는 事實을 미처 모르고 人夫를 사서 사흘 전부터 깨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完全露出된 蓋石의 크기는 길이 二〇〇cm, 폭 一七〇cm, 두께 七〇cm 가량(以上 朴氏등 目擊者들의 推算値)으로서 대략 橢圓形에 가까운 花崗岩塊石이었으며 長軸은 南西↖北東間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 蓋石의 밑동 바로 밑에서 蓋石의 長軸과 거의 一致되는 長方形의 石棺이 나타나자 이 石材마저 들어내기 위해 内部의 고운 흙을 파내다가 石棺上端으로부터 약 三〇cm 깊이의 石棺 바닥 中央附近에서 모두 鋒部가 北東向한 磨製石劍一點과 石鏃三點을 發見하였다고 한다. 石棺은 두께 一五cm 가량 되는 비교적 두터운 板石으로 北西쪽 長壁만을 二枚石으로 이어 맞추고 나머지 三壁은 모두 一枚板石을 세웠는데 石棺을 덮어씌운 평경의 흔적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들은 遺物만을 쟁진 후 이 壁石까지도 除去破砕시켜 버렸기 때문에 築造狀態와 正確한 크기는 알 도리가 없었다. 다만 그들의 어림으로 보아 石棺内部는 길이 八〇cm, 폭 四〇cm 가량으로 바닥은 흙바닥 그대로여서 確認이 不可能하였다고 하나 遺物의 出土位置로 보아 石棺内部의 깊이는 대개 三〇cm 안팎이었을 것으로 推定되었다. 遺構調査時 남아있는 흙벽을 整理하던 중 除去된 石棺壁石의 바깥 둘레에서 石棺의 構造를 補強하기 위해 채워둔 듯한 積石이 露出되었다. 이 積石은 一〇~三〇cm 되는 不整割石을 二~三段으로 不規則하게 채워둔 狀態였지만 石棺外壁의 윤곽에 따라 積石内壁은 대략 方形에 가까운 形態를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 나타낸 이 積石内壁은 길이 一一〇cm, 폭 九〇cm이며 積石上端에서



圖二 圓峰里 支石墓 殘存遺構

- 鋒端은 北向
- 積石露出部 外周는 蓋石의 推定輪
- 廓左側의 割石들은 蓋石의 破材임.

端下까지의 깊이는 二五~三五cm였다. (圖二)

三

遺物의 正確한 出土狀況은 알 수가 없었지만 申告人의 陳述과 遺構의 一部殘存狀態로 보아 石棺의 上端으로부터 약 三〇cm 아래인 맨바닥 中央에서 약간 南東壁쪽으로 치우쳐서 石劍이 나타나고 그 北西쪽에 三點의 石鏃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으로 推測된다.

一) 磨製石劍一點(圖三, 四)

灰青色의 粘板岩製인데 收拾할 때 不注意로 중간에서 半切되어 切斷

部位의 破片이 一部 缺失되었으나 全體的으로 매우 銳利하고 精巧하게 만들어졌다. 斷面이 扁平한 橢圓形을 이루는 자루는 二段柄式으로서 자루의 중간에서 劍身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극히 形式化된 듯한 얇은 凹溝가 만들어졌다.

劍身은 斷面菱形의 無血溝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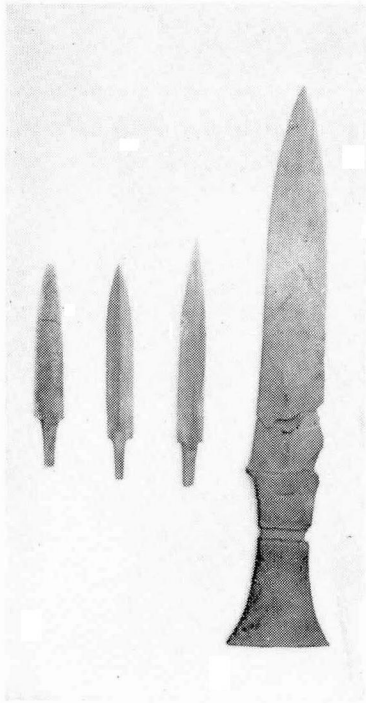
길이 三·四·六 cm 자루길이 一〇·七 cm 자루끝폭 六·七 cm, 자루끝 두께 〇·九 cm

(二) 磨製石鏃三點(圖三、四)

石劍과 같은 粘板岩製로서 크기만 다를 뿐 形態가 거의 같은 有莖式石鏃이다. 鏃身の 斷面은 菱形이며 基部는 稜角과 거의 直角을 이룬다. 點은 稜角이 基部 못미쳐 끝나지만 다른 二點은 莖部의 上端部까지 계속되었다. 斷面方形의 莖部는 밑동에 이르며 잘썩혀졌다. 鋒部 끝이 缺失된 一點은 보다 열은 灰色을 띠며 石質도 무르게 보인다.

길이 一·五·二 cm, 一·三 cm, 一·二·一 cm(現長)

이 밖에 除去된 흙더미 속에서 出土位置를 알 수 없는 赤褐色 紅陶系 統의 口緣部破片 二點 등 모두 三點을 收拾하였다. 두께 〇·九 cm 內外



圖三 圓峰里支石墓出土石劍 및 石鏃

의 比較的 두터운 것들로서 매우 精質의 胎土에 砂粒이 드물게 섞여 들어 있다.

四、

以上 論山地方의 一破壞支石墓와 出土遺物의 概略을 살펴 보았다. 前述한 바와 같이 이 支石墓는 調査當時 이미 蓋石은 물론 地下遺構의 大部分이 破碎除去되어 正確한 遺構의 狀況이나 遺物의 出土狀態를 제대로 把握하기가 不可能하였다. 다만 申告即日로 現地에 나가 目擊者들의 陳述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事實에 가까웠으리라 믿으며 그들의 證言을 바탕으로 이 支石墓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要約해볼 수가 있었다.

一、이 圓峰里支石墓는 形式上 南方式 支石墓에 屬하며 그 중에서도 無支石式(蓋石式)의 뚜껑 없이 積石構造만을 갖춘 類型에 屬한다고 할 수 있다①.

二、石棺은 北西쪽의 一長壁만을 二枚石으로 맞추고 나머지 三壁은 一枚板石으로 세웠는데 그 內部の 크기는 길이 八〇 cm, 폭 四〇 cm에 높이 三〇 cm의 小規模 石棺이었다. 그러나 副葬遺物의 性格으로 보아서는 小兒用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三、石棺의 바닥 中央부근에 磨製石劍 一點과 石鏃 三點이 모두 鋒部가 北東向으로 南東—北西間에 차례로 配列되어 있었다. 따라서 屍身을 埋葬시켰을 경우 頭向은 南西向이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四、石棺 위에는 따로 뚜껑을 덮지 않고 직접 巨大한 蓋石을 얹었던 것 같다. 이 花崗岩의 蓋石은 石質로 보아 隣接 朴氏家의 뒷켄으로 이어지는 岩壁으로부터 採取된 것으로 보인다.

五、出土遺物중 磨製石劍은 無血溝二段柄式에 屬하는 것으로서② 이 類型의 石劍은 南韓에서만 出土되며 그 중에서도 慶州를 中心으로 한 嶺南一圓과 嶺東地方에 많은 出土分布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近年에 이르러 이곳 錦江一帶에서도 相當數가 나오고 있다③.

(註)

- ① 金載元·尹武炳「韓國支石墓研究」一九七七、서울, p. 5~7. 여기에서의 分類에 따르면 圓峰里支石墓는 第1類B式에 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金元龍「한국의 고분」一九七四、서울, p. 五四~六〇. 여기에서는 南方式 과는 別途로 蓋石式으로 分類시켰다.
- ② 磨製石劍에 대한 型式分類로는 다음의 論著에서 各已 다른 觀點으로 提示되고 있으나 이 類型은 모두 有槓二段柄式이란 同一名稱으로 따로 分類시 키고 있다.
有光教「朝鮮磨製石劍의 研究」一九五九、京都.
金良善「再考를 要하는 磨製石劍의 形式分類와 祖形考定の 問題」『梅山國 學散稿』一九七二、서울.
- ③ 有光教「前揭書에 掲載된 錦江流域에서의 無血溝二段柄式(B1b式)의 出土 例로서 二例가 提示되어 있으나 近年에 扶餘博物館에서 申告接受한 것만도 모두 五例에 達한다.

(國立扶餘博物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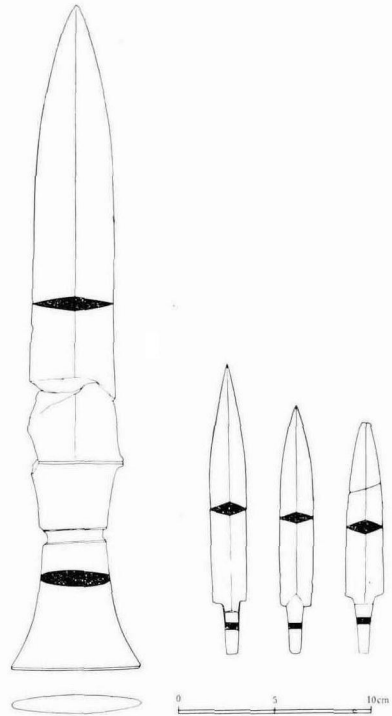


圖4 圓峰里支石墓出土石鏃 및 石劍實測圖